



개혁대신교단 신년하례회 준비만전

1월 9일 전주어울림교회 예배당에서
주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사43:18-21)



개혁대신교단 총회(총회장 김의철 목사)는 새해 23년을 맞이하는 신년하례회 준비를 마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회마다 총동원령을 내리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일시는 2023년 1월 9일(월) 1시30분이며, 장소는 어울림교회 예배당으로 확정되었다(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르면 이날의 오찬은 12시부터 개별적으로 시작하며 명소"샤브 50"에서 별미를 즐기도록 계획되었다. (식당 주소: 덕진구 초당길 11번지)

이날의 하이라이트 하례식은 1:30분에 시작된다. 하례식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으로 개혁대신교단의 새해를 기대하기에 적절하다.

한편 전북지역의 4개 노회는 연합하여 건국에서 모여드는 손님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오시는 손님들을 위하여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하례회는 합동총회 후에 처음 갖는 하례회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를 유치한 어울림교회는 담임 유남규 목사를 중심으로 전국교회에서 참여하는 목사님 내외분과 장로님 내외분을 환영할 차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하례회의 호스트 총회장 김의철 목사는 목사님 내외와 장로님들 내외분들을 정중하게 초청한다고 하였다.

총회장 목회서신

성탄의 기쁨



총회장 김의철 목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영적 암흑기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는 중단되었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줄 어떤 이도 없었다. 어둠, 두려움, 외로움 절망 이런 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한줄기에 빛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이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여 천사들이 들려준 말이었다. 전쟁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필연적으로 격을 수 밖에 없는 어둠과 슬픔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을 즈음에 들어 보지 못한 말이 귀를 울렸다. 영광! 평화! 이 말은 그들의 현실에서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꿈이 현실이 되게 하는 신비가 있다. 죄인이 구원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 받는 신비가 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예수님이 오신지 2천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그 복음이 전해진 지가 백년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어둠과 가난, 절망과 탄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어느 성탄이 브날이었다. 영국의 어느 교회 이브 행사에 흑인 남자가 들어가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려 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유인즉 교회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두 남자가 당신은 흑인이라 이교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 전용교회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교회 정월 한 나무 아래서 자신의 피부색을 원망하고 울고 있을 때 한 노 신사가 다가오더니 왜 울고 있느냐고 하여 이유를 말하니 그 노 신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이 교회가 생겨난지 100년이 지났지만 나도 한 번도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다. 여전히 성탄은 분주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주한가?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는 것인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탄절날 예수님을 바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타를 만들어 내세웠고, 선물 주는 일, 노는 일등 다른 곳에 마음을 빼기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 줄 모르고 생각 없이 산타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 결과 성탄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일년 중 성탄절이 음주통과 성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이것은 헤롯왕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까닭이다. 예수님 없는 성탄은 사탄이 춤을 추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바른 성탄절을 맞이해야 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탄이 성탄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게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게 해야 한다. 만약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어둠도, 절망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Merry Christmas

포토 뉴스



12월5일(월) 송도가나안교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을 구청에 전달하였다.

경인노회 (노회장 김명군목사)

경인노회(노회장 김명군 목사)는 지난 11월 15일(화) 인천 송도가나안교회(김의철 목사) 예배당에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흠어진 노회의 전열을 가다듬어 노회의 옛 영광을 회복하기로 다짐하였다.

이날 예배는 배수영목사(글러벌에손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총회장 김의철목사(송도가나안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비하고 잃어버린 노회원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교단산하 노회들 중에 모범적인 노회로 재건할 것을 다짐하였다



고 한다.

임원 선출 : 노회장 김명군목사(연결고리교회), 부노회장 이성현목사(김포좋은나루교회), 서기 노석두목사(예사랑교회),

경인노회 워크숍 개최

경인노회는 지난 12월 11일(주일) 오후5시, 춘천 가나안교회(김의철목사) 예배당에서 워크숍을 가지고 노회의 발전 방안과 새로운 교회의 가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헌법위원장 황호관 목사(꿈꾸는 교회)의 "교단 헌법과 교단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교단과 노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춘천가나안교회의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참석자들을 소개하여 박수를 받는 시간도 가졌다.

예배 후에 계속된 시간에는 사무총장 박만진목사(덕소제일교회)의 "개혁대신교단의 청사진에 관한 발제에서 교단직영신학교비전, 목회자 복지, 자립형 교회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총회장 김의철목사는 송도가나안교회 신축 예배당내에 대한학교와 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공개하고 미국에도 선교센터를 함께할 교회설립과 학교를 세우는 문제로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1월 중에 출국할 예정이며 춘천가나안교회가 이미 확보한 부지에 복지타운을 건축할 계획을 밝혔다.

2023년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총회 신년하례회

주제 :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사43:18-21)

- * 일 시 : 2023년 1월 9일(월) 오후 1:30(식사 12시)
- * 장 소 : 어울림교회(유남규목사) 010-4020-0675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 * 행사 : 샤브50 정오12:00부터 오찬 신년하례회 오후1:30
- * 참석자 : 전국교회 모든 목사, 장로 부부
- * 협찬 : 노회찬조(20만원, 교회광고)
- * 농협 301-0116-9212-81 (예금주/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 노회참석인원 확인요망 (1월2일까지)
- * 행사문의: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010-6358-0191



社說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성탄절이 오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리고 복잡해진다. 쟁길 것이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앙감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그럴 일이 아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영광도 예수께서 받으셔야 하고, 축해도 그러하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 나니?” 하고 물었다. 크리스마스는 단아한 들어도 흥분한 아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앞을 다투어 말하기를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루돌프 사슴, 썰매, 크리스마스카드, 쿠키, 말구유, 등등 모든 아이들이 쏟아낸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것들 중에 “예수”는 없더라. 어찌 그 아이들뿐이겠는가? 교회에서 확인해 볼일이다. 과연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변두리로 밀려나간 예수, 중심에서 사라진 예수는 아닌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변장한 예수는 아니 계실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박해진 세상이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가 겹치면서 각박하다 못해 살벌하다는 아우성이 들린다. 이런 때에 맞이하는 성탄절이다. 보니 더욱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 질법하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모아서 예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예수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내에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웃에 고독사의 현상으로 내 물린 안타까운 사람은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화려함을 넘어서 현란한 크리스마스 추리에 가려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그늘 아래서 슬프게 탄식하시는 않은가?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중심에 모시고 따뜻한 예수 탄일을 기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자.

세말과 새 해를 맞이하는 지혜

2022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는 세말을 당했다. 실패는 좋은 결산은 해야 한다. 수입 지출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과연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어디 있는가? 항아리에 담아서 땅 속에 묻어 두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야 한다. 이쯤에 작심삼일이라는 말로써 자책하기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을 늦었다. 그럴지라도 반성은 절대필요하다.

그 반성이 회개로 이어진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후회는 말아야 한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해도 이미 늦었다. 하지 않았는가?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여 열매를 거두고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지 않았는가? 시행착오라는 말로써 위로를 받으려는 알뜰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시행착오로서 허송세월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때가 급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촌음이 새로운 것이 요즘을 생각이다. 나이 탓으로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 세월이 유수오, 손 살이라는 말을 빌리지 않아도 실감하는 시기에 와 있으니 누구나 공감하리라 싶어서 하는 말이다.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새 해를 맞이해야 한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중에 맞이하는 새 해라면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군사 작전을 하듯이, 우리나라 구가 대표 축구선수들이 훈련하고 준비하듯이 그렇게 해야 중도에 꺾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어느 누가 소탈처럼 많은 세월이라 했던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예전에 경험하고 겪으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닌가?

노회정비 소식 종합

지난 제107회 합동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내용을 겪으며 아픈 상처를 안고 혼란 가운데 있던 노회들이 정기회를 열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한 노회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종합하였다.

경인중앙노회 (노회장 이주환목사)

경인중앙노회는 지 10월11일(오전 11시) 언덕위교회(이성용 목사) 예배당에서 95회 정기회를 열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배는 서기 이상용 목사(언덕위교회)가 인도하고, 노회장 이주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행복가정사역연구원 노영옥 목사의 노회 가입을 허락하고 노회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용목사)의 활동 연장을 허락하여 노회의 성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12명의 회원 참석하여 마음을 모았다.

경안노회 (노회장 김영식목사)

경안노회는 지난 11월 17일(목), 오전 11시 새부천교회 (박공서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제 95회 정기회를 가졌다. 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였다. 노회를 정비하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임원을 개선했고 이명정위원장 9인의 이명건을 허락하였으며 임원들이 하나 되어 노회원 영입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신임임원 명단 : 노회장 김영식/ 부노회장 박공서/ 서기 안영희/ 회계 김건수/ 회록서기 이희주목사



*이명자 명단: 정철욱, 김종민, 박재원, 이만영, 김용희, 최연범, 서용봉, 장진한, 유인석

제일노회 (노회장 조대현목사)

제일노회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 송도가 나안교회(김의철 목사) 예배당에서 제95회 정기회를 가진바 있다.

이날 개회예배는 여태원목사(평안교회)가 인도하고 노회장 조대현목사(안다목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강희준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노회에는 12명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노회의 정상화방안과 노회성장을 위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

영남노회 (노회장 김재룡목사)

영남노회는 지난 10월 4일(화), 오전10시 대한교회(공성희목사) 예배당에서 정기회를 열고 상채를 씻고 새로운 노회의 활로를 열었다.

이날 예배는 공성희 목사가 인도하고 노회장 공재룡 목사는 “엎마오 길과 예루살렘 길(눅 24:1~5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노회 정비에 뜻을 같이하는 6명의 회원이 모여 앞으로 노회의 회복과 신학생 영입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하여 노회의 장래를 밝게 하였다.



전북개혁신학원 2학기 종강예배

2022학년도 졸업식; 2023년 1월10일 예정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이경근목사)은 지난 12월 1일(목) 학부 2022 학년도 1학기 종강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학사일정을 마쳤다. 신대원(M.Div)은 12월 3일(토) 1학기 종강예배를 드렸다. 전북개혁신학원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사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점차 확진자가 줄고 안정세를 보임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정상적으로 채우고 종강하였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학기를 마치게 되어 모두가 감격스럽게 종강예배를 드렸다. 학부는 주, 아간으로 나누어 각각 예배를 드렸다. 주간부는 홍보처장 홍주일목사가 인도하고 선교처장 이부교목사가 기도하였으며, 교목처장 유남규목사가 유다서:1:20-21을 봉독한 후에 학장 이경근목사가 “유다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총무처장 진상운목사의 광고 후에 이사장 김환용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아간부의 종강예배는 학생처장 정대진목사가 인도하고, 교무처장 김종봉목사가 기도하였다.

실천처장 김관희목사가 로마서 8:5-6절을 봉독한 후 신대원장 류현목목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교수부장 정완득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총무처장 진상운목사는 2023년도 1학기 학생 모집광고와 함께 마지막까지 학업에 열중한 교수,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6월에 있을 준목고시에 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2022학년도 졸업식은 2023년 1월10일(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영복교회 제2대 이은종목사 위임감사예배



경중노회 소속 영복교회(담임 이충년목사)는 지난 12월 18일(주일) 오후3시, 제2대 위임목사 위임예식을 개최하고 이은종 목사를 위임하였다. 이날 예식은 경기노회 위임국장 박광식 목사(꽃밭교회)가 인도하였다.

영복교회의 시무장로 한창현 장로가 기도하였으며 경기노회장 박만진 목사(덕소제일교회)가 “강하고 담대하라.”(여호수아1:1~9)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진 위임예식은 목사와 교인들이 위임국장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서약이 있는 후에 위임국장은 “이은종 목사가 영복교회의 위임목사임을 공표”하고 노회장이 위임패를 증명하였다.

이어진 권면은 위임받은 목사에게 증경총회

장 장영광목사(광일교회), 영복교회 교인들에게는 증경노회장 조진석 목사(소방교회)가 각각 담당하였으며, 증경총회장 황호관 목사(꿈꾸는교회)가 축사한 후에 이은종 신임 위임목사의 답사가 있었다.

이날 예식은 증경노회장 김연선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영복교회는 이은종 목사의 부친 증경총회장 이충년 목사가 개척하여 30여년을 묵양한 건강한 교회를 알려주었으며 말기 암과 사투를 벌이는 병상에서 영상으로 이들의 위임예식을 지켜보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하였다. 영복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42-1에 소재하고 있다.

總會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김의철 사장 황호관 이사장 박성욱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장 김양섭
계좌번호: 농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임호빌딩 801호
총회홈페이지: www.rpck21.org E-mail: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본보 발행인
김의철 목사
(송도가나안교회)



본보 이사장
박성욱 목사
(뽕엘교회)



본보 사장
황호관 목사
(꿈꾸는교회)



본보 부사장
박경남 목사
(중심교회)

조직신학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13)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부총장, 조직신학)

(지난호에서 이어짐)

그리스도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셨기에 의로운 분이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4-5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고 하였다.

"율법의 마침"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종결 짓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으로 도덕적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계명에 따라서 "율법의 목적"을 이뤘다는 의미이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구절은 더 이상 율법이 소용없어졌다거나,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엘 비키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종결하였다고 하

더라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율법에 담긴 도덕적 교훈들의 권위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존 머레이 교수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각자 율법과 관련하여 의로움을 획득하려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종결되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여만 얻어지는 것이 다(롬 1:1-2, 3:21, 4:1-22, 9:4, 33, 10:6-8, 11, 13, 15, 11:27, 15:8-12, 16:25-26).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십시오 율법을 성취하셨다.

결국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왜냐하면 그의 종보적인 사역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의롭다 함을 얻게 하고자 율법의 목적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성취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표를 성취하셨고, 그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의로움을 사사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의로움의 전가(imputation)교리를 은혜 언약과 연결하여 풀이했다.

또한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전가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 기초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다뤄갈 것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실천하는 일에 매진하는 삶을 추구한다. 이를 "실행한다(doing)"는 헬라어는 "포에이사이(poiesai)"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갖도록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그의 법을 따라서 완벽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 요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죄에 대한 징벌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긍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죄인에게 그에 합당하고 정당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10절에서,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다.

야고보서 1장 22-27절에서도, 율법을 그져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구절들은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를 인용하고 해석한 것이다. 의를 실천하는 기준이 율법 안

에서 제시되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기능들을 강조하였다. 멜랑히톤은 루터가 제시한 율법의 두 가지 기능, 첫째로 죄를 비취주는 거울의 용도, 둘째로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는 용도가 있음을 강조했다. 율법의 기능이 매우 부정적으로 비취지는데, 멜랑히톤은 이외에도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칼빈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구약의 율법들이 감당해온 기능들 중에서 "제3용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석했다. 율법의 제3용법이란, 감사의 규범, 혹은 복음에 대한 반응의 용도이다. 죄인에게 율법이 선포되면, 성령이 율법을 사용해서 중생케 하고, 회개하게 만든다.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율법은 지속적으로 죄악 된 욕망들에 대한 권징을 하며, 매일 회개를 촉구하고, 죄악 된 미혹과 함께 날마다 씨름할 때에 교훈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루터에게는 율법이 매우 부정적인 기능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빈은 매우 다르게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였다.

후기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행위언약(covenant of the Works)"을 성취하신 것으로 이해했다. 17세기 개혁주의 신학

자들은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과 조건을 하나님과의 "행위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은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행위언약의 정당한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다.

모세와의 언약에서는 율법의 요구와 명령이 자세하게 드러났다. 모세가 제시한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언약으로 규정된 이유는 옛 언약 실행에 있어서의 독특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세 언약을 "타락 후 아담과 맺어진 은혜 언약의 점진적인 표현과 실현에 일치하는 행위 언약 협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16세기와 17세기 언약신학자들이 모세 언약 속에서 은혜 언약의 요소와 행위언약의 요소가 동시에 담겨 있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미 두 언약의 모든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사상 속에 존재했었음을 틀림없다. 칼빈 교수는 언약신학을 변호하면서 행위언약의 개념을 유지하려고 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칭의론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다음호에 이어)

동정



김의철목사(총회장, 송도가나안교회) 12월11일(주) 경인노회 워크샵 12월13일(화) 히스토리캠퍼스 방문 12월17일(토) 박요한 목사결혼식 축사



박형진 목사(직전총회장, 새은혜교회) 11월27일(주)꿈꾸는교회 장로임직식 설교 12월 4일(월) 특별새벽기도 12월17일(토)박요한 목사결혼식



임중학 목사(증경총회장, 재인교회) 11월24일(목) 전북개혁신학원 종강예배 12월 6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여행 12월17일(토)박요한목사결혼식



류현옥 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 11월 24일(목) 전북개혁신학원 종강예배 설교 11월 26일(토) 전북개혁신학원대원 종강예배 설교 12월 6일(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여행 예배 격려사 12월 13일(화) 전북동노회 여전도연합회 참여



황호관 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정) 11월27일(주)꿈꾸는교회 장로임직식 행사 12월17일(토) 박요한목사결혼 축도 12월18일(주) 영복교회 위임식 축사



윤서구 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 12월17일(토) 박요한목사결혼식 12월18일(주) 안산임마누엘교회 임직식 설교



김정호 목사(부총회장, 한소망교회) 12월5일(월) 전북노회 교역자회 참석 12월8일(목) 위탁부도 송년의날 참석



배수영 목사(서기, 예스글로벌교회) 11월 5일(토) 전장연 수련회 설교 12월13일(화) 히스토리캠퍼스 견학 12월15일(목)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졸업식 참여



이경근 목사(증경총회장, 평안교회) 11월 24일(목) 전북개혁신학원 종강예배 설교 12월 2일(금) 전북증경노회장단 회장선임 12월 6일(화)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여행 인솔 12월 13일(화)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참석



조석학 목사(전 근목, 경인노회) 12월5일(금) 송도간안교회 설교 12월12일(월) 춘천가나안교회 방문 12월13일(화) 히스토리캠퍼스 견학



유남규 목사(회의록서기, 어울림교회) 11월 21일(월) 총회인원회 참석 12월 8일(목) 군산교도소 성탄감사예배 12월 19일(월) 국제기아봉사단 이사회



박만진 목사(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 11월29일(화) 한교연총무협 총회 참석 12월5일(월) 기도교 기념관 착공예배참석 12월6일(화) 한교연 총회 12월18일(주) 영복교회 위임식 설교

조직신학

인간 이해하기 15.



유정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2021년부터 우리는 엄강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살펴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형상대로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고 피조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완전 타락한 상태, 즉 죄의 결과로서 육체적 죽음과, 죄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영적 죽음과 그로 인하여 본질적 죄인이라는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는 아담의 생물학적 조상론과 대표조

상론에 기인하여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가되어 타락한 인간의 상태로 출생하였음을 말씀 안에서 공부하였다.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피트리프 소로킨(Petrin Sorokin)은 그의 저서 "The Crisis of Our Time"에서 사회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인류 문명은 점점 더 발전된다는 전체 하에 인류의 문명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며 문명의 미래를 예측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15세기까지 기간으로 소로킨은 이를 신분주의(Ideational Culture) 문명 시대로 구분하였다. 이 시대는 기독교가 잘 정리된 이론은 아니지만 인류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던 시기로 하나님 중심의 문화시기였으며 미술 분야는 상징만 존재하였던 시기였으며 두 번째 단계는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기간으로 이상주의(Idealistic Culture) 문명 시대로 구분하였다.

이는 자연신주의(DEISM) 사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인간 중심의 문화시기로 창의력과 진취력을 중시하였던 시기

구분함으로써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문명이 도래하였다고 구분하였다.

미술에서는 선과 조화가 주체였으며 상세한 자연을 묘사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현대 21세기 까지 기간으로 감성주의(Emotive Culture) 문명 시대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는 인류 문명이 감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감정 표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명작, 명품을 구분하게 되는 등 인간의 감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류의 문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새로운 문명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론은 내렸으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 1927~2008)은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Human Civilization and Remaking of World Order:1996)"에서 현대는 종교의 충돌 시대가 되었으며 종교문명의 충돌은 인류의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종교적인 분

석을 통하여 인류 문명의 미래를 내다보았으며 막스주의자이며 자연주의자로 소로킨의 영향을 받았던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1,2,3파장이라는 술어로 문명을 비평하였다. 첫 번째 물결은 수렵-농축 문화, 기계화 문명발전기였으며 세 번째 물결은 전자문명 발전기로서 지식 기반 사회가 됨으로써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과학만능주의 시대임을 지적하였다. 이어 1970년대 초반에 출판된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에서는 자연의 충격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론을, "권력이동(Power Shift)"에서는 인류의 능력은 더 이상 지식과 산업이 아니라 자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전쟁과 반전

쟁(War and Antiwar)"에서는 테러리스트 운동이 일어날 것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 즉 진화론적인 발전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이 성취된다는 이론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인류 문명을 다양하게 예견하였다.

그러나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동시에 인류 역사의 청지기인 특별한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장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 최선의 상태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한 까닭에 인간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여 계획 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복음은 믿는 자들이 궁극적인 인류의 운명에 대해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소망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증생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과 사명론적인 발전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쁘다 구주 오셨네!

Portrait of Im Jong-hak,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재인교회)

Portrait of Yun Seung-gu,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임마누엘교회)

Portrait of Yi Gyeong-n,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평안교회)

Portrait of Ryu Heon-uk,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동명교회)

필리핀-아프리카 선교 소식

선교사 박희원 장애숙



주님의 크신 이듬으로 교회와 목사님, 선교 동역자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어려움 없이 잘 계시는지요. 이곳 선교지 역시 고물가 현상으로 모든 것이 예전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되어서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루신 은혜에 감사 올립니다.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코로나 기간 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 모두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필리핀을 오며 격리도 여러 번 당하였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아내가 심장(가슴)의 불편과 불편으로 고생하면서 몸의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의 많은 부분에 이상이 왔습니다.

나름 각종 여러 병원과 여러 한의원을 찾아다니셨으나 신체 기능 저하가 원인이라서 검사상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딱히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진 데다 급성 간염까지 와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서 입원을 하는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좀 늦었으면 간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간 수치가 엄청 높고 위험한 지경이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입원 기간 중 간 수치는 잡혔으나 퇴원 후에도 다른 병증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고 좋지 않아 부득이 간호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심장이 불편하니 코로나 백신도 맞을 수 없었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하여, 몸은 더 쇠약해졌고, 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몸 여러 부분에서 부작

용과 탈이 났습니다. 호흡, 두통, 어지럼증, 관절염, 식도염부터 위염, 궤양, 대장까지 탈이 나고 심해져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시경 후 처방 약을 받아 복용해도 낫지 않고 더욱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몸이 회복되지 않아 한국에서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힘들게 해를 넘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난 봄부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내의 한국에서 계속 몸조리를 하고 있으며, 저는 홀로 우선 필리핀에 복귀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제자들의 사역

5년간의 필리핀 학업과 사역 교육을 마치고 제자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기간 일심으로 기도하며 좋은 포도 묘목을 키우기 위해 뜻을 두고, 제자들에게 시간과 물심양면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초창기부터 제자 하나, 하나가 주님의 좋은 묘목이 되어,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들의 모국에서 주님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신학 교육이 어렵고 부족한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 정식신학 학위를 갖고, 선교 지도와 경향을 받은 두 제자는 보배와도 같습니다. 저의 기도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재 총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명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모슬렘이 주류인 그들 나라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총성으로 감당하려는 두 제자 올리버와 엠마누엘, 그리고 앞으로 감당할 차드의 사역을 위해 또 도움을 주기 위해 물심양면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예배 설교하는 제자 올리버 목사



제자 임마누엘 목사와 그가 목회하는 감비아 복음 교회



“멀리 있는 자가 가깝고 가까이 있는 자가 멀다” (마태복음 2장 1-12절)



박성욱 목사 (본부 이사장)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온 세상이 소동했습니다. 갓난 아기가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시거나 교리를 선포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그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면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한 회개로 속사람이 흔들리며 영광의 소망과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과 거치는 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멀리서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서 있는 모습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으나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 멀리 있었으나 가까이 온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 자들을 섭리 가운데 부르시고 항상 구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자가 주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대의 전승을 따라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애매 모호한 지식을 가졌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큰 별을 좇아 오던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출중해도 그것만으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헤맸에게로 가 왕이 나신 곳을 묻습니다. 진리에 대해 호기심만 가지고 거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나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했을 때 왕이 되기까지의 성장 기간을 기

다린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박사들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성만 계절에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으로 답하며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복을 누리야 하겠습니다.

2. 가까이 있으나 먼 자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기 예수나신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만 알고 소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헤롯 대신 다른 왕이 등장하면 큰 다툼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을지 모릅니다. 당시 불도 삼킨다는 헤롯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든지 죄를 품고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이 동요한 것처럼 죄성을 가진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나신 곳을 물었을 때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하게 했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에 관해 듣기는 들었으나 주님의 통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겐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베들레헴에 찾아간 이는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지식과 행위가 결별된 상태는 아닌지, 교리에는 고철안중이 나 행위는 빈혈증 환자가 아닌지, 전통적 교리는 주장하나 열매는 없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며 그 앞에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멀리 있는 자들을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오도록 불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행인 김의철 목사, 이사장 박성욱 목사, 사장 황호관 목사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5,100,000	박성욱	2,400,000	최현일	50,000
총회신학교	5,000,000	박경남	4,000,000	이하중	50,000
박 형 진	1,400,000	호서노회	200,000	김해수	50,000
김 의 철	600,000	꿈꾸는교회	400,000	벨렐교회	350,000
경기 노회	1,100,000	유현욱	300,000	김중봉	300,000
전북 노회	1,100,000	김일출	1,000,000	임재승	70,000
전북동노회	1,100,000	박광식	350,000	김정호	100,000
전북중노회	550,000	신연식	50,000	강대희	300,000
서울남노회	300,000	박연성	50,000	이정근	300,000
서울동노회	500,000	김진영	350,000	이부교	350,000
경기서노회	300,000	육한수	50,000	서용진	50,000
전남 노회	300,000	박춘배	350,000	모악교회	350,000
남부 노회	100,000	권병락	100,000	한마음교회	350,000



總會 改革公報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감사의 말씀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안녕하세요? 축복과 염려 속에서 아들 결혼식이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두루 평안하시고,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아들목사 부부는 인천송도가니안교회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인천 송도에 준비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댁내에 대소사 시에도 저희가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올림

더불어 생각할 正論

내 인생의 결산 앞에서



류현옥 목사 (중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급변한 해는 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겪으며 정신없이 지나왔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과연 내 인생의 한 해가 어떠한지를 결산하는 때이다. 이때 우리는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결산이란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그렇다면, 급변한 해를 살아온 내 인생 결산은 어떠한가? 한 인간으로서 자기 인생의 삶에 대한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결산은 더욱 중요하다. 곧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삶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결산서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겠다.

가) 내 인생의 본분을 바로 알고 살아왔는가?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의미하다. 이 전제에 대한 확신에서 신앙인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절)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가족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일 년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가? 혹시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편리대로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님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처리하는 종의 자세는 어떠한가? ① 그때, 그때의 상황을 주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②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는 주인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 자문은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금년 한해를 결산하면서 내년에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자문을 구하며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하겠다.

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해 왔는가?

회사에서 결산할 때 누구에게 상을 주는가? 자기의 이익을 많이 챙긴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유익을 끼친 사람에게 상을 준다. 나라에 고공된 공무원의 유능함은 그 신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였는가, 그래서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이 되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는 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주님은 결산의 시간에 종들을 불러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평가의 기준이다. 어떤 이들은 도시의 대형 교회는 성공한 교회요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요,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준이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외적인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를 평가하신다. 그렇다면, 금년 한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상의 일들에 충성을 다해 왔는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충성됨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등한히 했다면,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

다) 올바른 결산은 복된 삶의 문을 열게 된다.

우리는 올 한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는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부끄럽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자기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충성을 다하는 결산이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결산과 그것을 내일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진실한 회개와 내일을 향한 비전이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충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되었기에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복을 쏟아 부어주마"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충성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중울산교회 담임)

오스트리아에서는 다뉴브강을 헤엄쳐 건너는 경기가 열린다. 이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강 중심의 소용돌이 지역이다. 수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를 포기한다. 그러나 노련한 선수들은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낸다. 요령은 간단하다. 소용돌이 지점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 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다.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빨려든다.

나중에는 기진맥진하여 경기를 포기한다. 프로들은 소용돌이에 잠시 몸을 그대로 맡겨 버린다. 그러면 거센 물결이 사람의 몸을 한껏 빨아들였다가 수면 위로 되돌려놓는다. 잠시 가만히 있는 것이 소용돌이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

성경강해



장영 목사 (신학각 교수)

오늘은 계11장의 내용 중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6절까지는 "두 증인"의 정체, 7-13절까지는 그들의 순교와 사람들의 회개 사건이, 그리고 14-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렇게 11장의 내용을 3 부분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문단인 1-6절은 "두 증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성전을 청량하라"(1절)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2절)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전', '성전 밖 마당', 그리고 '거룩한 성'은 실제적인 건물이나 장소

지혜로운 삶을 위한 제언(提言)

와 같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행로는 끊임없는 소용돌이의 연속이다. 한고비 지나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바로 소용돌이 속에 맴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금년 한해도 우리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을 간신히 빠져나왔다.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소용돌이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고물가 고금리의 소용돌이까지 겹쳐서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겹겹이 짓누르고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생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시점에서 우리는 "해 아래는 새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상은 결코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한편 새해에는 또 어떤 삶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이하려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인생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하면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부족한 사람이 감히 인생의 소용돌이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청년시절에 한 친구가 자신이 타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나를 태우고 부산에서 속초에 이르는 7호선 국도가운데 부산에서 울산까지의 약 50킬로미터의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린 적이 있었다.

출발하기 전에 친구가 당부하기를 커브 길을 회전할 때에 오토바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질 것 같더라도 몸을 반대 방향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오토바이가 전복하는 사고가 난다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토바이가 기울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커브 길을 회전할 때 정말 오토바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금방 넘어질 것 같아서 겁이 났다.

그러나 친구가 당부한 대로 친구의 허리를 움켜잡고 오토바이가 기울는 대로 몸을 내어 맡겼더니 넘어질 것 같았으나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친구의 허리를 움켜잡은 손과 등에 식은땀이 흥뻗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 즉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항상 진전한 물결 위로만 순탄하게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량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위협할 때도 있다.

우리가 인생항로에서 소용돌이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겨보자. 맡긴다는 것은 "내어 던진다.", "굴러버린다"는 의미이다. 인생의 풍량이 밀려올 때 스스로 벗어 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그리고 내 삶의 전부를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 맡겨야 한다.

아무리 거센 풍량이 밀어닥쳐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배 고를에서 편안히 잠드신 우리의 선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맡기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풍량을 선하게 이용해서 소망의 항구로 무사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디언들은 1월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즉 인디언들은 1월을 새로운 출발의 의미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달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많은 소용돌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때마다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며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삶의 바른 지혜가 아닌가 싶다.

계시록 5분 강의노트(20회)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교회, 즉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청량하는 행위는 실제 성전의 치수를 재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를 상징하는)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종말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그들을 환난 날에 보존하신다는 의미였다면, 11장에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도 그와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량되지 않은 '성전 밖 마당'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당한 부분으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한 교회의 구성원들, 즉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한)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좇는 사람들, 그리고 그와 똑같이 거짓 예언자이던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2,3입니다. 그 거룩한 성에 대한 이방인의 공격은 42달 동안 이어질 것이고(2절),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3절)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간들, 즉 42달, 1260일은 사실 둘 다 3년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수는 완전수 7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계시록에서는 환난이나 고난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빛과 같은 복음이 선포될 때 어둠의 세상나라가 무너지게 되므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나라는 그들에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10x6의 표현처럼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11:3-6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중요한 질문은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정체입니다. 먼저 둘이란 숫자는 구약에서부터 증인들의 숫자로 잘 알려진 의미를 지닌 상징수이며, 그리고 3절의 '두 증인'을 4절에서 다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달리 표현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구약의 상징을 사용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형식을 파괴하여, 새로운 상징을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신약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구약성경인 속 4:2,3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등대의 상징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변화시켜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스기라는 일곱 가지가 있는 메노라 등대 하나와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만, 계시록 본 구절에서는 스기라의 두 감람나무는 그대로 인데, 일곱 가지가 있는 메노라 등대를 두 개의 촛대로 바꾸어 내고 있습니다. 한편 촛대는 계 1:20에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 내러티브 안에서, 촛대를 다른 상징으로 사용하겠다는 어떤 신호가 없다면, 그 의미는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내고, 거기서 나온 기름으로 부음을 받은 촛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증인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두 증인'은 결국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로, (종말의 날들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 또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5절의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표현은 렘 5:14"...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거주자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인데, 그 증인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불타우는 기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총회개혁공보 1년 구독료 후원 협조문



발행인 김의철 목사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총회개혁공보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모두들 힘들겠지만 우리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 개혁공보 1년 구독료 5만원, 명함광고비 30만원 한번 납부해주시면 신문발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회 분납하셔도 됩니다.
 송금하실 때 꼭 교회명이나, 담임 목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총회개혁공보 구독료 1년 5만원
 교회 명함광고비 1년 30만원
 노회파송비 매월 10만원

계좌번호 농협/ 301-0140-5587-4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문/ 010-6358-0191 편집국 / 박만진 목사



총회개혁공보사

발행인 김 의 철 목사
 이사장 박 성 옥 목사
 사 장 황 호 관 목사

재언

나와 동행할 친구



김양섭 목사 (동주교회)

사람이다. 친구가 있어 유익한 경우는 친구는 넘어질 때에 붙잡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산악이 많은 유대 지역을 여행할 때에 넘어지기 쉬운 상황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방향을 떠나온 우리는 광야 길을 가면서 삼겹 줄 같은 친구를 가진다면 더없이 고맙고 즐거운 일이다. 내가 넘어져 괴로울 때에 찾아와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더없는 위로가 된다.

켄스카마츠 라는 사람이 아일랜드를 여행할 때에, (아남카리)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 뜻은 케일 어로 아남은 영혼을, 카리는 친구를 의미한다. (아남카리)는 영혼의 친구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비밀과 자기 치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칭한다.

나중에는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친구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할 때에 자신의 가식과 허울을 벗어 버리고 마음 깊은 곳의 비밀, 꿈과 두려움, 실패와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우정을 쌓기에는 시간과 탐과 회생이 필요하다.

그 두 번째는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해준 관계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것이, 그리고 마음의 따뜻함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를 향하여 대 계명을 실천하려고 말씀하신다.

일교차가 큰 유대 지방은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에 서로의 체온을 나누어 주위를 이길 수 있다.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병비가 등장했다.

이때 우리의 호주머니를 열어 재물을 훔쳐 보내자. 친구 유익의 세 번째는 여행 중 강도의 위험을 보호해 줄 삼겹 줄 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필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도 세월이 가면 그 업적과 명성은 사라지며 없어진다. 그러나 영원한 권세 자인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끝까지 동행하며 우리를 기억해 줄 친구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아남카리)가 되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고, 내 생명, 내 친구, 내 기쁨, 내 소망이시다.

인생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길이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2022 한 해와 이별하고 새로 오는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간 365일, 또 다가올 365일 생각하면 세월이란 친구는 나를 찾아와 동행하다가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리고 또 새로운 365일이 찾아와 나와 동행한다. 이때 우리는 한해를 정리 하면서 반성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새해를 계획한다.

생각하면 다가를 제야의 종소리, 그리고 울려 퍼지는 성탄 캐럴이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우리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각자도생의 필요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우정의 꽃을 피울 친구가 있더라도 한가?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몇 명의 친구가 있는지 손꼽아 볼 일이다. 과연 끝까지 함께, 동행할 친구가 있는가? 별고 긴 인생 여정에 동행할 친구는 꼭 필요하다. 지혜의 사람이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가르친 친구의 유익을 살펴 지혜를 얻음이 유익하다.

먼저 친구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본다. 친구는 친교와 같은 말로 친척과 벗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친은 친척, 구는 오랜 벗을 뜻한다.

그러던 것이 한국에서는 친척의 의미가 빠지고 벗의 의미로 한정되었다.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말한다. 과거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으나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져서 사실상 반쯤 가족인 인간관계를 말한다. 성경에서는 친구라는 말이 가장 아름답게 외닿는 곳이 있다.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실로 행복한

광야의소리



황호관 목사 (중경총회장, 본보 사장)

국민시인으로 추앙받는 소월은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그가 남긴 시들은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 명시들이니 틀림이 없다. 그중에도 "초혼(招魂)"은 각별하다. 교과서에 실릴 만큼 명작이니 누가 아니라 하겠는가? 혼을 불러 온다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의 배경을 알고 보면 애뜻하기 그지없다. 소월은 아주 불운한 삶을 살아야 했다. 남산보통학교를 거쳐 오산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의 사랑에 굶주린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을 살갑게 대해주는 세 살 위의 소녀 오순을 통해서 사랑 고픈 소년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손자를 거두어 길러 주신 할아버지께서 강력 반대하여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하였고, 오순 누님 역시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였으나 의지

증 심한 남편의 구박에 병을 얻어 요절했다는 기막힌 소식을 듣고 장례에 참석했다가 아픈 가슴에 흐르는 절절함을 표현한 것이 초혼이라니 그가 부른 이름은 오순이라는 그누님이 분명하다.

사람마다 부르는 아픈 이름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이름은 실로 불러 봐도 대답 없는 이름일 수밖에 없고,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이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에 목을 맨다.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성경은 우리가 부를 소중한 이름을 제시한다. 그 이름은 예수이다.

마태는 성탄사건을 기록할 때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했다.

누가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 예수는 누구인가? 성탄절에 그 이름을 생각한다. 예수는(구원자)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사회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죽음을 피하여 유랑하며 끊임없이 고통하고 탄식하다가 영원한

그 이름 예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실존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이것이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 준 성탄 메시지 1호이다. 예수는 큰 자이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 천사의 예고이다.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룸으로서 큰 자라는 칭호를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자라는 사실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셨다. 그의 입에서는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샘물처럼 흘러 넘쳤고, 그의 삶은 실로 모든 사람의 모범이요, 모델이 되었으며, 심자기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드러낸 인류 초유의 사건이었다.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된 큰 자임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천사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전해 주었다.

올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는 중에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친히 내 아들"이라고 공언하셨다. 한번은 세례 받으시던 그 날에 모든 사람들

이 확실히 들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실로 그러하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증거 하였다. 옳다! 그렇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담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의 위를 이어 받은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위를 이어 받았다는 것은 왕 되신 예수님의 정통성과 통치성격을 말해 준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또한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다스리신다. 세상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으로 다스린다. 공평무사하지도 않다. 힘 없고, 의롭게 살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 내가 부르다 죽을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초청칼럼



문용길 목사 (한미음교회 원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시며,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완성하셨다. 성도의 생각과 언어 행동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실 때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성령님의 임재(臨在)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성탄의 계절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좋은 기회로 삼음이 얼마나 좋은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2)"고 엄히 말씀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창조, 성자 예수님은 구속성취,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예수 안에서 성숙하여

하나 됨을 도우신다. 이런 일들을 모두 말씀으로 이루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운데 거하시니 그 사실을 실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심히 난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말로 문자로 다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온몸에 전율이 진동하도록 감사와 경배와 찬미밖에 드릴 것이 없다. 우리의 짝은 입술로 고백하기에도 송구할 뻔임을 깨닫는 수준에 이를 뿐, 다른 일은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사실을 믿고 깨달아 아는 인간으로 분류되어 그 지식과 소망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밝히 드러내는 삶 자체가 참으로 은혜중에 은혜임을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구주 성탄의 계절에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영원하신 주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영생으로 바꾸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만입이 있어도 감당치 못하겠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이 고백과 이 진실을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2의 성육신(成肉身) 이야기

구속의 역사가 성자 하나님께서 인자(人子)가 되심으로 이뤄진 사실을! 일점일획도 의심이나 불신의 작은 티도 없이 진솔하게 바보처럼 믿는다.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나도 성육신하신 나의 주님을 본받아서 제2의 성육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숙제라고 고백하고 싶어한다. 혹자는 이것이 무슨 불경이며 망발이나 할지 몰라서 이렇게 설명해 본다. 우리의 이를 제2 성육신은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을 본받아 '말씀의 육화(肉化)'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이다. 바로 우리의 부족, 우리의 미완성이 여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를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제 김수환 추기경을 사람들은 바보 성자라고 지칭하는 까닭은 그의 삶 자체가 그러했고, 그의 인격이 그러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를 바보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바보의 삶을 산 것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묻는다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살았고 우리가 바로 그 말씀대로 산다면 바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바보가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영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보처럼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이 보여야 하는데 위수는 원수로 대하고 사랑은 혼적도 없이 지우며 분별력과 구별됨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더더욱 돈의 위력을 가장 실감하는 부류가 우리 크리스천 아니 목회자라고 본다면 우리 맘몬을 추종하는 부류라고 자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는 실로 난감하고 슬픈 일 아닌가?

이런 판단을 거부하는가 아니면 자인하는가? 그 책임을 자본주의 사회에 돌리는가? 인간의 본능에 책임을 지우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만 하지 않고 삼기일전하여 새롭게 목표를 수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를 즉 육화의 길은 실로 많기에 그렇다.

성령의 열매를 보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이라고 육화를 보여도 교회는 살아 능력을 나타내리라 믿는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그나라에 입국할 때까지 이를 말씀의 육화로 새로운 중생의 실제상황을 보여 줄 것이다.

우리의 말씀의 육화! 이것이 제2의 성육신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됨의 진실이다.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에 성탄절보다 더 좋은 때가 또 있겠나!

전국교회예배안내

Table with 12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service information.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service times. Churches include: 승도가나안교회, 성현교회, 덕소제일교회, 평안교회, 광일교회, 모악교회, 재언교회, 꿈꾸는교회, 남광교회, 낙원교회, 화평교회, 새목장교회, 중심교회, 벨엘교회, 한빛교회.

세계관공부 성경적세계관 바로알기-3



부회의록서기 박승우 목사 (세부교회 담임)

이것은 곧 인간을 위해 성경을 푸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푸느냐의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리이지, 인간의 정욕을 위한 이단사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보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악한 이단자도 나오고 거룩한 성자도 나온다. 이렇듯이 관점을 달리 하면 성경의 진실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역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가장 강한 세속주의의 시대이다.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 종교 통합운동, 반 기독교 등이 활성화 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마저도 세속주의 세계관이 범람하여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실정이다. 현대 교회는 십자가 없는 공짜구원을 외친다. 성경 전체에서 고요하게 십자가의 정신을 빼버렸다. 영적 관점의 변질이요 타락이다. 그래서 고난과 환란과 궁핍과 곤고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이 난해한 것이고, 거부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빛나던 세속적 세계관을 가진 변영 신학자들이 광야의 실제적인 책임 요한계시록을 구도로 상징화하여 풍요와 복락의 애급책으로 변질시킨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등불이다. 이 등불을 꺼뜨리고자하는 이것은 기독교의 재앙이다. 이제 기독교가 맞은 소금이 되었다. 부흥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살길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은 성전 건축이나 교회 성장보다 우선시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시대적인 사명이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보는 가

치이고, 예수사상이고, 구속의 관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 66권이 기록되었고, 기독교가 정체성을 유지해왔으며, 기독교인(하나님의 백성)이 악은 열매(성화)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다. 특히나 종말의 복음서인 요한계시록을 저자인 사도요한의 기록목적에 부합하여 정확히 해석하는 데 성경적 세계관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종합적인 결론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학적 학설이나 신비주의적 사상이나 논점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성경 전체의 일관된 맥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풀어야만 한다. 성경적 세계관은 크게 세 개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 창조적 세계관과 타락적 세계관과 구속적 세계관이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명확해질 때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이 깨달아 지는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자.

1. 창조적 세계관

창조적 세계관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이다.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창조적 세계관은 진화론적 세계관에 반대되는 필연적이며 목적론적인 세계관이다. 창조적 세계관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간 자신(영혼과 육체)과 일생에서 겪는 모든 사건, 사고에 의미성을 둔다. 심지어 인간의 죽음과 궁핍과 질병과 고독 같은 거친 고난에도 말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창:1: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 지라(창:2:7)" 세상은 인간의 진화를 주장하지만 성경의 증거는 대단히 단호하다. 인간은 실존(眞存)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 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죽음과 동시에 에너지 형태로 사라지지만,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자마자 영계로 들어가서 영원불멸한다. 또한 자유의지가 있기에 자연의 순리에 순응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다. 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었는지는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제378차 월례회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김정숙 권사)는 지난 12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금상교회(채영구목사) 예배당에서 제378회차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여전도회장 김정숙권사(낙원교회)의 인도하고 여전도연합회 감사 김수열권사가 기도하고 인도자가 창2:20~25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은혜의빛 교회 김금영목사의 특송후 금상교회 채영구목사가 '에덴의 여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사랑빛교회 고난숙목사가 봉헌기도



하고 여전도회장 김정숙권사의 광고 후, 금상교회 채영구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금상교회는 참석자들을 위하여 오찬으로 섬겼다.

“차별금지법 반대” 공동성명

“양심과 종교, 표현과 학문의 자유 훼손하는 악법”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기총),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교연),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세기총), 기독교 3개 연합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29일자로 발표하였다. 세 단체가 공동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교계와 정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정신은 물론 남녀 양성애 근거한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법이기 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 금지할 규정 한 기준 법률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

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앞세우고 있으나 실상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차단하려는 '역차별'의 모순을 안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세 단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재 제안된 대로 통과될 경우, 동성애는 사실상 합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며 "그렇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보호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성교육까지 시행해야 한다"며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누르는 '역차별'의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한국교회연합, 제12회 정기총회 성료

“진정한 연합의 본 보일 것” 선언; 대표회장 유임결의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지난 6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12회 총회를 열고, 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유임을 결정하는 등 각종 현안을 처리하였다. 한교연 선관위(위원장 권태진 목사)에서 단일후보로 추천한 현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를 제12대 대표회장으로 박수로 추대하였다. 한교연은 제12회기 7대 중점 사역으로 ①차별금지법 저지 ②국가변영 및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 개최 ③한국기독교기념관 건축 ④기독교사학보 호와 발전 ⑤기독교 연합기관의 통합으로 정하고 '제12회 총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복음 증거 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 △분열과 갈등을 통해 회복하며 새로운 각오로 연합과 일치에 매진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제정을 배격한다. △사회적 약자를 섬긴다.



△형제애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연합의 본을 보인다.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상임회장 원종문 목사가 인도하고,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가 기도하였으며, 서기 홍정자 목사가 왕상21:17~26절을 봉독하였으며 명예회장 권경희 목사가 '엘리아 시대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후 순서에 따라 특별기도의 순서를 가졌으며,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축사가 있었다.

전북개혁신학원 졸업여행

교수들과 졸업예정자들, 뜻깊은 여수의 하루 여행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이경근목사)에서는 지난 12월 6일(화) 졸업예정자들과 교수들이 여수에서 하루를 보내며 사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의미 있는 여행을 가졌다. 이번 여행은 졸업위원회(위원장 허미란 전도사)에서 준비하고 기획하여 진행되었다. 졸업여행에 참여한 6분의 교수와 17명(신대원 8명, 학부 9명)의 졸업예정자들은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여정에 앞선 감사예배는 졸업위원장 허미란 전도사가 예인도하였고, 교무처장 김충봉 목사가 기도하고 이사이4:18~15절 말씀을 인

도자가 봉독한 후에 학장 이경근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신대원장 류현욱목사의 격려사, 총무처장 진상은 목사의 광고 후에 교수부장 정완득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여행은 단 하루 일정으로서 전주에서 관광버스 편으로 여수를 향하여 출발, 여수의 명물인 돌게와 갈치잡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고, 돌산공원 케이블카에 올라 오동도로 이동, 겨울 바다를 돌아보고, 예술랜드 라피크 카페에서 가진 따뜻한 차미팅은 무거운 강의의 짐을 잠시나마 털 수 있어서 좋았다.

한국기독교 홍보관 및 예수 조형물 착공 감사예배

한국교회연합회(이하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와 한국기독교기념관(이사장 황학구 장로)은 지난 5일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 3층 아가페 홀에서 '한국기독교기념관 홍보관 및 예수 조형물 착공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개회 예배는 한교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가 인도하고, 한교연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의 기도, 한교연 서기 홍정자 목사의 성경봉독, 특별기도, 백경성·김민수 교수(중앙대)의 특송, 송태섭 목사의 설교, 김요셉 목사의 축도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 보고 및 축하 순서는 최귀수 목사의 사회로,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 황학구 장로의 인사말, 박대순 교수의 공사보고, 기념관 영상 시청, 김요셉 목사의 격려사, 김진호 목사(기갑 증경감독회장)의 권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심영성 장로(한교연 명예회장)의 축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사장 황학구 장로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오늘까지 왔다"며 "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것을 믿었고, 한교연을 비롯해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박대순 교수는 조형물의 세부구조와 시공계획 등 전반적인 공사에 대한 보고에서 '예수상

건립에 역량을 끌어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대로 진행할 것이다. 충남 천안 10만평 대지 위에 기독교 테마파크를 조성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랜드마크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건립될 '한국기독교기념관'에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137미터의 '예수상' 조형물이 세워지며, 고층을 마친 '예수님의 무덤'과 미국 캔터키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노아의 방주', 빛과 기억의 공간인 '부활의 집(목회사, 선교사 포함 특별기념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찬양과 경배의 공간이자 야외 공연장, 만남의 광장인 '헤세디안 언덕'을 비롯해 '성경 박물관', '성경 식물원', '공연장', '다목적 예배홀', '메모리얼 로드', '연수원' 등이 세워질 것이라 한다.

전국교회예배안내

<h3>영복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p> <p>담임 이충년 목사 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송호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p>	<h3>동명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30</p> <p>담임 류현욱 목사 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4길 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p>	<h3>새은혜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p> <p>담임 박형진 목사 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프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p>	<h3>디베라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p> <p>담임 신연식 목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양력리 39-7 전화 010-5438-0811</p>	<h3>성인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찬양: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p> <p>담임 정완득 목사 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전2길 24-6(삼천동1가) 전화 010-7285-8291</p>
<h3>등주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30 금요일: 9:00</p> <p>담임 김양섭 목사 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삼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p>	<h3>높은뜻세움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주일: 2부 7:00 금요일: 9:00</p> <p>담임 김선영 목사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상가내 전화 010-2301-0998</p>	<h3>임마누엘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30 구역예배(금): 9:00</p> <p>담임 윤서구 목사 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지구 희망로534번길 6-8(상산동) 전화 010-3722-9106</p>	<h3>중울산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p> <p>담임 김정용 목사 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상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p>	<h3>소성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30</p> <p>담임 박준호 목사 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1길 16-11(삼천동1가) 전화 (063)226-9111 / 010-9278-5653</p>
<h3>수원성심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3:00 수요일: 7:30</p> <p>담임 박춘배 목사 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p>	<h3>한마음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7:00</p> <p>담임 한상진 목사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2가길 42 전화 010-7676-6891</p>	<h3>꽃밭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2:00 금요일: 9:00</p> <p>담임 박광식 목사 027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1(상월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p>	<h3>한소망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수요일: 7:30 수요일: 7:30</p> <p>담임 김정호 목사 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1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p>	<h3>김제반석교회</h3> <p>예배시간 새벽: 4:30 주일: 11:00 수요일: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p> <p>담임 이부교 목사 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p>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총회 임원회



총회장 김의철 목사	부총회장 김정호 목사	부총회장 조성윤 장로	서기 배수영 목사	부서기 이다윗 목사	회록서기 유남규 목사	부회록서기 박공서 목사	회계 김천수 장로	부회계 김종민 장로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	----------------	----------------	--------------	---------------	----------------	-----------------	--------------	---------------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대신총회 전국 노회장

경기노회 노회장  박만진 목사	경서노회 노회장  신연식 목사	경성노회 노회장  박성욱 목사	경안노회 노회장  김영식 목사	경인노회 노회장  김명군 목사	경인중앙노회 노회장  이규천 목사
경중노회 노회장  이철영 목사	남부노회 노회장  이광무 목사	동서울노회 노회장  신장균 목사	대전노회 노회장  류정수 목사	서울남노회 노회장  김정용 목사	서울동노회 노회장  임용태 목사
영남노회 노회장  김재룡 목사	전남노회 노회장  서용진 목사	전북노회 노회장  박종윤 목사	전북동노회 노회장  주상기 목사	전북중부노회 노회장  정완득 목사	제일노회 노회장  조대현 목사